

한편 뮐러사는 1899년에 에드문트 오스발트 뮐러(Edmund Oswald Müller)에 의해 창립되었다. 119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시작부터 사기업 형태로 있었다. 2대 폴 뮐러(Paul Müller)가 1943년에 가업을 물려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어 드릴기계나 선반기계도 존재했다. 2차 대전 이전부터 장난감 생산공정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2차 대전 이후 급속하게 발전했다. 1950년대 후반 에르츠산맥의 민속적인 소재들이 상품에 적극 활용되었다. 3대 군터 뮐러(Gunter Müller)는 1973년에 가업을 계승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더해 장식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이때부터 장난감이나 생활용품보다는 장식품에 집중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는 링고 뮐러(Ringo Müller, 48세)가 회사의 4대 대표가 되었다. 기존의 전통방식에 고도의 혁신성을 가미하여 반원형 촛대 장식인 슈뵘보겐(schwibbögen)의 간접조명, 전자식 오르골 등을 개발했다.¹⁰

장난감 만드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교육을 마치고 인증서를 받았을 때가 1989년이었어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 직전이었죠. 동독 인증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어떤 공방에도 취직할 수 없었어요. 통일이 되니까 세계가 열리고 외국문물이 밀려왔어요. 통일 이후에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마침 마이스터를 할 수 있는 특별허가를 받아 1996년에 마이스터를 취득했어요. 마이스터 마지막 시험에서 슈뵘보겐을 작품으로 정했어요. 촛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걸 간접조명으로 해서 무지개가 나오도록 처음 만들어보았죠. 특허도 신청했어요. 당시 아버지가 기차모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차역사와 주변 마을의 나무 집에 불이 켜지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마이스터가 되고 나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베를린 자유대에서 마케팅으로 석사과정을 했어요. 목공예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3박자를 고루 갖추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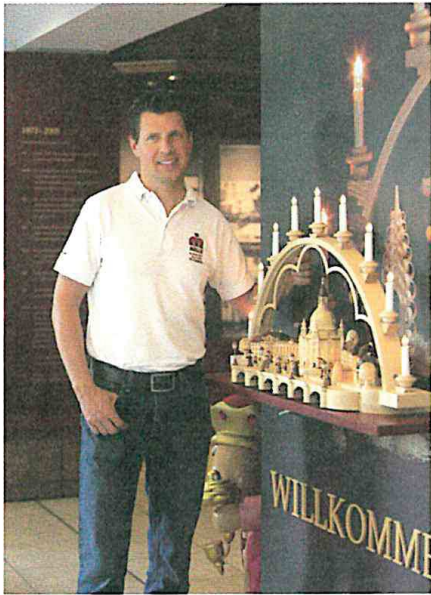


뮐러사 쇼룸



뮐러사 카탈로그(1925년 제작)

¹⁰ 뮐러사 대표 링고 뮐러 인터뷰(2017.7.6.) 및 Müller, 2017, HAUPTKATALOG 참조. "어렸을 때 에너트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예수탄생 구유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에너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규어가 정말 좋은 목재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매료되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사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의 매료됨, 좋은 나무들, 예술작품.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면서도 새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 운영할 때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잊을 수 없는 장난감이자 피규어입니다."



링고 윌러 대표와 슈빱보젠

구동독시기에는 사기업의 운영자체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큰 공방들은 국영기업이 되어야 했고, 자이펜의 작은 공방들은 사유화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동독정권은 전쟁물자 생산에 관여했던 공방들의 활동을 철저히 제한했다." 따라서 윌러사는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폐기해야만 했는데, 이는 사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치였다. 1972년에 이르러 다시 국유화 움직임이 크게 있었는데, 윌러사는 다시 한 번 그 사이에 모았던 것을 폐기했다. 당시에 자이펜 지역에서 50개 정도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구동독시기에는 회사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당시 각 공방은 나무를 할당받았는데, 사기업들은 수량이나 품질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회사의 상품들이 서독에서 인기가 있어 전량 수출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나무를 분배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상품을 만들면 정부에서 모두 가져갔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상품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통일은 윌러사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수출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디자인과 상품 개발, 기계 제작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 대표적인 기술혁신 사례는 슈빱보젠의 무지개 간접조명,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자 오르골, 피라미드 회전부위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세라믹 부품 개발 등이다.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상품의 질을 높이고 독창적인 것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었다. 동독정권의 통제와 탄압이 사라지면서 공방들의 독자성과 자유가 보장된 결과다.

통일은 회사발전의 동력이 되었어요. 제가 18살 때 통일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얼마만큼 활용하는가는) 세대차이가 가장 컸다고 봐요. 50살 넘는 공예가는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영향이 큼니다. 오픈 마인드였고 다양하게 실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도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빨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억눌렀던 것을 모두 발산했어요. 여행 할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사물들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사진 찍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했어요.

11 윌러사 대표 링고 윌러 인터뷰(2017.7.6.) 참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공방들마다 장난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할당받아 만들어야 했어요. 탄약, 무기, 탄피 같은 것을 담아놓는 나무상자들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할당을 받았죠. 할아버지께서는 과거의 전쟁물자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 폐기했어요. 그전에 만든 것들은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관련 기록도 태워버리고요. 지금 여기(사무실 진열장)에 전시한 것들은 그때 마루바닥 밑에 감추고 해서 겨우 남아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베이에서 다시 산 것도 있어요."

시대상황에 따라 제작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표상품인 피라미드는 바쁜 일상 중에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져다주는 장식품이다. 피라미드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만나는 사람들의 자리가 더 좋아지는 것이다. 비록 제작기술은 발전했지만, 상품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감과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변화는 지난 50년간의 변화보다 더 급격했고, 이런 상황에서 뮐러사가 당면한 많은 과제들은 녹녹치 않다. 링고 뮐러 대표는 최고경영자로서 판매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독일에서는 소규모 전문점들이 사라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전의 소매상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형화되고 큰 곳들만 남아있어요. 이전에는 관광객이 많은 곳의 소매점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쾰른 대성당 옆 소매점,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등등 유명한 관광지마다 소매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매점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고객은 소매상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진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품은 1년 동안 생산하는데, 판매하는 것은 8~9주 정도에 집중적으로 나가요. 판매시즌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는 것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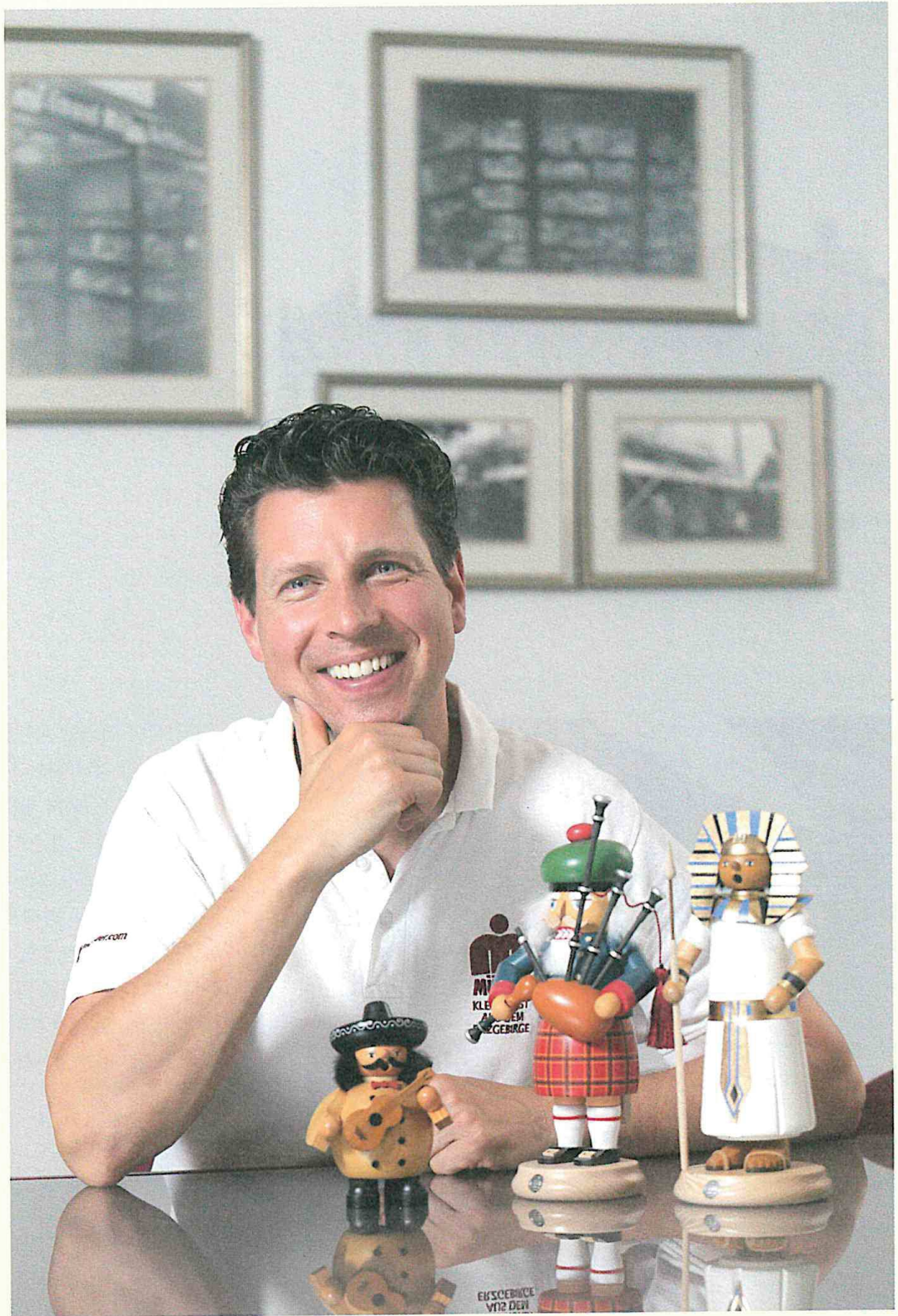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장난감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단순히 수작업이라 여겨 직업으로서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불투명한 시장동향과 함께 장기적으로 수공예산업 자체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유명한 곳들만 살아남게 된다. 시장수요와 판매량에 따라 제품 수를 늘리기보다 아이템만 바꾸게 되면, 수요가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품들의 다양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만 생산하게 된다. 문화의 다양성을 잃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뮐러사 쇼룸 내부



반원형 촛대장식인 슈빌보겐



기술들은 발전해왔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물할 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깊게 다가와요.

링고 윌러 대표

윌러사 공장 탐방



자이켄 생산공장

3주 동안의 여름휴가 하루 전인 2017년 7월 6일 오후에 링고 윌러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윌러사 공장을 찾았다.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이 엄청 나서 직원들은 전부 귀마개를 하고 있었다. 공장 여기저기에 기계가 그렇게 많아도 수작업이 전체 공정의 80%를 차지한다.



생산공장 내 나무 보관 장소



나무의 성질에 대한 설명

“35가지의 다양한 목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지역에서 나는 목재들을 이용합니다. 단풍나무는 특히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보리수나무는 밝은 타입이면서도 조금 어두워요. 가문비나무는 훨씬 가볍고 줄무늬도 자연스럽습니다. 매우 연해서 손톱자국도 납니다. 반면에 단풍나무는 훨씬 견고합니다. 가문비나무로 피라미드부품을 만듭니다. 마호가니나무, 아마차코에, 얼룩말나무 등의 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강조를 주기 좋아서입니다.”

“다 만들고 나면 65% 정도가 쓰레기입니다. 집진시설을 통해 다 모읍니다. 필터를 통해 먼지는 위로 빨려 들어가고 공기는 정화되어서 다른 파이프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이 깨끗해지고 직원의 작업환경도 좋아집니다. 쓰레기는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100% 난방으로 재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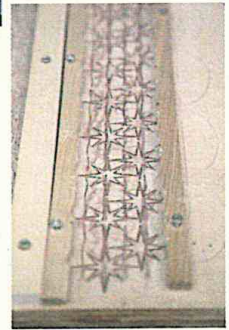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장 내 집진시설

기계화 생산공정 및 수작업 조립

“첫 번째 공정으로 보리수나무 안의 심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90도로 수직으로 자릅니다. 자른 나무는 사포질을 합니다. 나중에 락카칠을 하는데 칠해도 기본색상을 보여야 해서 사포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 450개 제품을 만듭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의 부품들을 동시에 만듭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씩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량으로 만들어 조립을 합니다. 모든 제품은 마지막으로 락카 공정을 거칩니다. 색깔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입니다. 품질을 중요시하는데, 처음 락카를 바르고 그 틈을 정리하고 다시 락카를 칠합니다. 칠한 후에는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락카를 칠하면 나무 본연의 구조가 잘 드러나는 동시에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나무가 변색되는데 그걸 방지합니다.”



각 제품의 부품들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기계화 공정



락카칠 작업모습



공장 2층의 도색 및 조립 작업장